

광주, 7개 업종 영업제한 해제 ... 기지개 켜는 일상

광주시 방역 2단계로 완화 ... 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유흥주점·노래연습장·목욕탕 등은 20일까지 금지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소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그동안 집합(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겪어온 일부 업종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营业을 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3·6면〉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준 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제한적 영업이 가능해진 시설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놀이공원·공연장·민간(공공 제외) 실내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정소년수련 시설·멀티방·DVD방이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집합금지 시설로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감염자단을 위해 시설별로 세부적인 방역 수칙도 만들었다. 이들 시설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된다. 출입자 명부 운영·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두기, 일 2회 이상 환기 등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형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견본 주택은 10일 미만

으로 운영해야 하며 멀티방·DVD방·공연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에서는 공용 샤워시설, 실내 흡연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또 실내골프연습장과 스크린 야구장·당구장·볼링장 등은 실별·레인별 2인 이하만 허용된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 수준을 완화했다. 물론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했다. 다만 클럽과 토크쇼 등 유흥주점·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뷔페·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종교시설·목욕탕·대학운영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기원 등 14개 시설의 집합 금지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인데다,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선 확진자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기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 제한 업종도 그대로 유지가 유지된다. PC방·게임장·오락실은 만



‘복적복적’ 다시 활기를 찾은 광주 말바우시장

재개한 이후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광주시 북구 대표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이 14일 오후 추석대목을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말바우 시장은 최근 시장내 밥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일시 폐쇄됐으나, 상인 전수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고 장사를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음식 판매·섭취 금지 등 조건부로 이미 운영중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골센터·공연장·구내식당·일반음식점·스터디 카페·독서

실·카페·제과점·편의점 등은 운영 제한이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준 3단계로 격상되고 일일 평균 확진자 9.1명을 기록하

다가, 지난 10일 준 3단계를 연장한 뒤 평균 3.8명을 기록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 481명 중 절반이 넘는 243명이 무증상 확진자인데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9명이나 돼 언제든 방심하면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8홀 기적의 침입 이글 ... 광주 이미림 ‘메이저 켄’

LPGA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

광주출신 프로골퍼 이미림이 극적인 18번 홀(파5) 침입 이글을 앞세워 메이저 대회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 정상에 올랐다. 〈관련 기사 22면〉

이미림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캘

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낸 이미림은 넬리 코르다(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공동 1위로 연장에 돌입했다.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 이미림은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 우승 상금 46만5000달러(약 5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되며 첫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고진영에 이어 이 대회 우승은 2년 연속 한국 선수 차지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이미림은 2017년 3월

KIA 클래식 이후 3년 6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승째를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했다.

이미림은 우승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예전에 하루에 세 번 침입을 기록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두 번은 있었는데 세 번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평소처럼 경기한 것이 우승 요인”이라며 “오늘이 4라운드 가운데 가장 경기가 안 풀렸는데 행운이 따른 것 같다. 우승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벽에 응원해주신 한국 팬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보내주신 응원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미림이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을 추석연휴 집에서 보내세요 ▶3면
굿모닝 예향 - 곡성 한바퀴 ▶18·19면

아베 정권 ‘시즌2’ ... 스가, 내일 일본 총리 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공식 발족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

스가는 이날 압도적인 표 차로 총재에 당선됐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함께 535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스가는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스가 외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 총재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이시바의 득표는 68표, 기시다는 89표에 그쳤다.

총리 지명 선거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실시된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총리 선출이 확실시된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7년 8개월여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된다. 스가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총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스가 정권은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의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며 아베 정권 계승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